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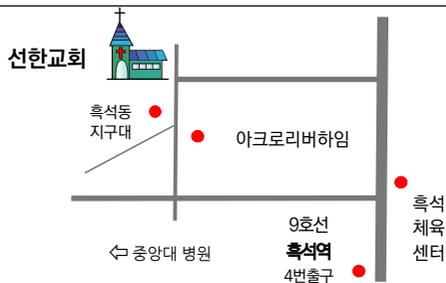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진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응,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79장 (통일찬송가 40장)
교 독 문	교독문 42 (시편 98편)
찬 양 과 경 배	405장 (통일찬송가 458장)
대 표 기 도	유신웅 장로
말 씬 봉 독	마태복음 13장 24~30절
설 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잠10:1-16)

교회소식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수감사절 예배
다음 주일(15일)은 추수감사주일 축제예배로 드립니다. 추구감사절 오행시는 개인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총회
11월 22일까지 각 부서 총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안내
1. 주일예배: 2부(9시30분/11시)로 나누어 드림(11시 예배영상 제공)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는 금요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림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2차): 6개월동안 일독하시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금주 범위: 대하27장~욥기8장]
4.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 경건서적 부서별 나눔
1. 활동기간 : 11월 15일(일)까지
2. 각 부서별 나눔 방법과 내용
- 각 부서 회장(또는 리더)을 중심으로 경건서적 읽기와 나눔 운영
- 경건서적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공감의견, 경건서적 문장 또는 문단에 대한 공감의견, 기타 경건서적 관련 내용 나눔
3. 경건서적 독후감 및 부서·개인 나눔활동 사상계획
- 제출시기 : 11월 15일(일)까지
- 시상부문 : 독후감 부문, 부서별 활동 부문, 개인별 나눔 부문
- 독후감 : A4용지 1페이지 정도로 간략한 책 내용 및 소감 등 자유내용
- 부서 및 개인별 나눔 : 부서별 경건 서적에 관한 카톡방 등을 활용한 나눔 내용 전체, 나눔 활동 우수회원 2인 이내 활동 내역제출
- 제출처 : 교육부장(123peter@hanmail.net)
- 수험생을 위한 기도
올해 수험생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손진강, 손가은, 홍성호 / 수능일: 2020년 12월 3일
1.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과 담대함과 체력을 허락해 주시도록.
2. 수시모집 지원후 면접과 실기 준비중에 있는데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최고의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3. 어려움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되도록
-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열방이 이상송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찬송 :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통 354)

본문 : 고린도후서 8장 1~6절

말씀 : 헌금 이야기는 민감하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헌금에 대해선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헌금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표현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으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리 넉넉한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풍성한 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여인의 두 렵돈을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막 12:41~44) 부자의 헌금이 여인의 헌금보다 액수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에 비춰보면 여인의 헌금이 더 가치 있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 헌금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어놓은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졌기에 내게 있는 물질도 주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를 가집니다. 나를 드리지 않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라 기부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이 주님을 위해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자기들이 드린 헌금이 복음 전파 사역에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헌금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것 중 일부를 떼어 헌금을 드린 것으로 믿음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헌금 속에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제물로 드려도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헌금에 관해 명령이 아닌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헌금이 명예를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헌금은 주님의 사업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면 적은 것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자원함으로 드리면 힘에 지나도록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섬김이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헌금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바른 헌금 생활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신을 드리며 섬김을 위한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거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헌금은 섬김과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흥정이 됩니다. 우리는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입니다.

제목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마13:24-30)

서론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 천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론

1. 알곡과 가라지

- (1)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음(24절)
- (2)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림(25,28절)
- (3)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별이 되지 않다가 결실할 때 분명히 보임(26절)
- (4) 종들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지만 주인은 알곡을 위해 추수때까지 두라고 하심(28-30절)
- (5) 추수때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곳간에 넣음(30절)

2. 교훈

- (1)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수 있는가?
- (2)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왜 함께 두시는가?
- (3) 추수때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되는가?

결론

가라지의 방해 속에서도 옥토밭에 떨어진 좋은 씨로서 자라나 풍성한 알곡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조윤익 장로

매일 Q.T.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날짜 : 11월 9일
찬양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19-28
	<p>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여 바르게 지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성을 유지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좇으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성도들의 사랑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p> <p>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이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어 성도들 속에 한없는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에 간구하고 계십니다(참조, 롬8:26-2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 속에 항상 기뻐하는 신앙 생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p>
묵상질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왜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의 기도	

개인성경공부	고난을 넘어 영광의 자리로
찬양과 기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 336) 세상의 유혹 시험이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기독교인을 향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촉망받던 로마 군대 장교 마셀루스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 오랫동안 굶주린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이후 마셀루스에게 기독교인들이 숨어 지내는 지하 신앙 공동체 카타콤 수색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는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색출해 검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카타콤을 수색하던 마셀루스는 궁금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믿음을 지킬까, 저들이 믿는 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카타콤을 찾아가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카타콤의 지도자인 호노리우스의 설교를 통해 마셀루스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신분, 명예, 가문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택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결국 마셀루스는 동료 장교인 루쿨루스에게 잡혀 재판을 통해 화형됩니다. 그가 화형으로 죽어 가며 한마디를 외칩니다. “이겼다, 승리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마셀루스는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p> <p>성도에게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승리를 얻기 위해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는 무엇인가요?</p>
말씀 나누기	데살로니가후서 1:1~12
묵상포인트	<p>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박해와 환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 고난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드러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성숙한 신앙인으로 빛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주로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반면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안개처럼 잠깐 있는 현재의 고통에 집중해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p>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바울은 어떤 이유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 교회에서 자랑했나요?(3~4절)
적용하기	믿음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이겨 내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잠시 겪는 고난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할 그날을 고대하며 어떤 고난도 달게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나의 기도문 (중보기도)	

찬양	찬송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3:6-18
	<p>바울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자신들이 보여 준 모본을 따라 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양식을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애써 일함으로써 자급자족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받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복음에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믿는 자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성도들로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나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으로 나태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음을 교훈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열심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을 통하여 대가를 취하여 자신과 가족을 돌볼 뿐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여야 합니다.</p> <p>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보내는 편지의 교훈을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교회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교회에 악한 풍습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치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치리를 행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교회의 치리는 미움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치리받는 자를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사랑함으로써 권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다면 어떤 말이 될까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1-12
	<p>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도 핍박이 심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인사와 축복은 복음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면 언제나 기쁘고 만족하는 평강을 누리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p> <p>바울은 데살로니가인 교회가 핍박을 받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이며 그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은 복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여야 할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큼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참조, 마5:12). 또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참조, 롬5:4).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는 축복의 과정인 것입니다.</p>
묵상질문	힘든 일을 견딜수 있는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1-12
	<p>바울은 데살로니가인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주장으로 인해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여러 주장들이 난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많이 생겼으므로 바울은 이를 염려하여 교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성도는 언제나 믿음에 굳건히 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씀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우왕좌왕하는 혼란이 야기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재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p> <p>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로 묘사된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영광을 받으려 하는 가증한 일을 행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전에도 성도들에게 이에 대하여 교훈하였음을 상기시키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소유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고 말함으로써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의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두려워 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에 대한 승리를 확정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들려오는 소식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찬양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13-3:5
	<p>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을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사랑으로 성도들을 아시고 택하셔서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의 종생의 역사를 통하여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도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성 때문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도들로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증거하였습니다.</p> <p>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음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파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즉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는 이가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모든 성도가 자신의 신앙과 여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구하여야 할 간구 내용입니다.</p> <p>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먼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같이 달음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의 일행이 악한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었기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 승패를 결정짓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p>
묵상질문	자녀와 가족을 위한 나의 간구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